

기품 더한 브랜드 로고 및 심볼의 가독력 우수

주문자 상표 부착(OEM)방식으로 판매

김지동 / 하이트(주) 광고팀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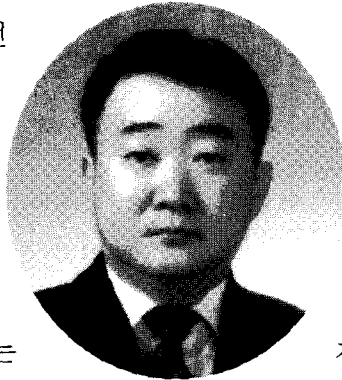
한 국 패키지디자인학회가 선정한 2002베스트패키지 디자인 컴패션 에서 하이트(주)의 “랜슬렛” 제품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패키지디자인상은 최근 2년동안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창의력이 우수한 상품, 소비자독해력을 갖춘 실험적 요소가 강한 상품 등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차에 걸친 투표로 선정했다.

이번에 대상으로 선정된 하이트(주) 계열사인 하이스코트의 랜슬렛은 기능성을 고려하고 병 목부분에 요철상태의 크리스탈 느낌을 가미시켜 잡기 쉽고 멋스러움이 어우러진 절묘한 밸런스를 유지한 것이 높이 평가돼 수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다.

특히 랜슬렛의 라벨은 전설 속 원탁의 기사 중 제1기사였던 랜슬렛의 권위와 용맹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대의 원탁 형태를 취했다.

또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원탁의 기사, 그들



의 높은 뜻을 상징하는 13개의 칼이 그려져 있으며 신의 가호를 받는 최고 기사와 위엄을 상징하는 카멜롯의 문장이 새겨져 있어 강하면서도 고풍스런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행사의 심사를 맡은 김지철 세종대 교수는 “패키지디자인의 적, 흑, 골드에 잇는 색상조화는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정통 스코틀랜드 위스키로서의 품위와 기품을 더하고 브랜드로고와 심볼의 가독력(可讀力)도 우수하였다는 것이 심사원들의 중론이었다”며 “랜슬렛이 수입주의 증가로 만년 수출입 역조현상을 갖고 있는 우리 풍토에 기여하는 상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랜슬렛 디자인 관계자는 “한 해를 마감하며 이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만한 디자인과 용기의 본 기능을 살리는 것을 중점으로 디자인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랜슬렛”은 원액숙성 12년 산과 17년 산으로 140년 전통의 스코틀랜드

소비자 욕구에 부합된 제품 생산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

위스키 종가를 자임하는 에드링턴그룹 (THE EDRINGTON GROUP)(회장 Ian Good) 으로부터 완제품을 주문자 상표 부착(OEM) 방식으로 판매하게 된다.

자체브랜드인 랜슬렛은 12년, 17년 출시와 더불어 21년산 및 30년산을 곧 출시할 예정으로 향후 하이트맥주의 홍천공장에서 일부를 직접 병입(Bottling)하여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하이트맥주는 한국최초의 맥주회사로 1933년 일제하에 大日本맥주 회사가 설립한 조선맥주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당시 경기도 시흥군 영등포읍에 부지를 매입, 그해 12월 공장을 준공했으며 자본금 6백만원(圓), 10만평의 공장규모를 갖추고 『삿뽀로』상표로 제품을 생산한 이래 올해로 69년을 맞고 있다.

하이트의 주력 제품인 하이트 맥주는 지난 96년 업계 1위에 올라선 이후 맥주업계 국내 유일의 토종회사로 외국 주류사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1999년에 이미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

99년에 처음으로 100억원대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지난해에는 724억원이라는 창사

이후 최대의 판매와 실적을 올리는 쾌거를 이룩했다.

한편 지난 98년에는 창립 65주년을 맞아 상호를 조선맥주주식회사에서 하이트맥주주식회사로 변경하는 CI작업을 완료, 맥주 및 계열사간의 시너지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하이트맥주는 001년 6월부터 제품을 생산하는 전 단계인 원료에서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브랜드로 관리하기 위한 “브랜드키퍼제”를 실시 그 일환으로 “생산실명제”와 “신호등 온도마크” 등을 도입해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 및 품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2001년에는 69년 만에 청담동 신사옥을 마련하고 지난해 3월 100% 보리맥주 <하이트 프라임>을 개발하여 7년째 계속 이어온 맥주업계 수위자리를 굳게 유지하고, 더욱 철저한 고객관리와 시장분석을 통해 맥주시장을 지속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하이트의 글로벌브랜드로의 육성을 통해 신뢰받는 맥주 회사로 성장하길 기대해 보며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한 제품 생산을 통해 신뢰받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